

베트남 소재 남·북한 관련 자료

- 베트남전쟁기(1954~1975년)를 중심으로 -

도미엔*

1. 머리말
2. 베트남 소재 남·북한 자료 개관 및 구성
 - 가. 하노이 시 소재 제3 베트남국립자료센터
 - 나. 호치민 시 소재 제2 베트남국립자료센터
 - 다. 기타 자료
3. 대표적 자료 소개
 - 가. 1951년 호앙 꾸옥 비엣의 북한 방문 회고록
 - 나. 1957년 호치민의 북한 방문 연설 관련 자료
 - 다. 1955~1975년 북한의 북베트남 지원 상황 관련 자료
4. 맺음말

1. 머리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트남과 한반도는 분단되었고, 한국(대한민국)과 남베트남(베트남공화국),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 수료

북베트남(베트남민주공화국)은 각각 수교를 시작하였다.¹⁾ 한국과 남베트남의 관계는 반공주의를 바탕으로 1955년부터 형성되었고, 1956년 5월 외교관계가 확립되었다.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는 1950년부터 시작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확립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1964년부터 남베트남에 의료부대와 태권도 교관을 파견했으며, 뒤이어 1965년에 전투부대 파병을 시작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북한도 베트남전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즉, 남북한과 베트남의 정치적 연계는 1950년대부터 모색되기 시작하였으나, 직접적인 관계는 베트남전쟁을 통해서 맺어졌던 것이다.

한반도와 베트남의 연관성은 이렇듯 ① 한국·남베트남 외교 관계수립 및 한국의 베트남 파병 ② 북한·북베트남 외교관계 수립 및 북한의 베트남전 지원에서 비롯되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 2가지 문제들에 대해 현재까지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자료를 검토 및 소개하는 것이다.

우선, 베트남전쟁이 갖고 있는 중요성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베트남전쟁 및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에 대한 연구, 또한 베트남전쟁기의 한국과 남베트남관계를 살피는 연구가 활발한 추세이다. 그러나 해당 연구들의 대부분은 한국과 미국의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그 시각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을 지닌다.²⁾ 즉 베트남을 제외한

1) 이하 대한민국은 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 베트남공화국은 남베트남, 베트남민주공화국은 북베트남으로 약칭하였다.

2) 한국의 베트남 파병과 한국·남베트남 외교관계에 대한 대표적 연구성과들은 다음을 참조. 박태균, 「베트남 파병을 둘러싼 한미협상 과정-미국문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2006년 봄호(통권 74), 2006; 안정애,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파병 관련 국내 자료의 종류와 성격」, 『한국기록학연구』 제9호, 2004. 04; 한홍구, 「한국과 베트남전쟁」, 『내일을 여는 역사』 5호, 서해문집, 2000; 윤충로, 「20세기 한국의 대베트남 관계와 인식: 1945년 해방 이후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97집, 2013 등. 해당 연구성과들은 주로 한국과 미국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한편, 베트남공화국과 대한민국의 국가형성 과정을 비교분석한 연구로는 윤충로의 『베트남과 한국의 반공독재국가형성

차원에서의 자료 및 시각으로 한국·남베트남의 관계, 또는 한국의 베트남 파병을 살펴보는 접근 방법이란 여러모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 북한·북베트남 관계의 전개과정, 또한 북한·북베트남 관계와 베트남전쟁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그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베트남전쟁 당시 전장에서 실종된 한국군이 북베트남을 거쳐 북한으로 옮겨졌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남북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베트남전쟁, 한국·남베트남관계, 특히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북한·북베트남 관계를 살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그러나 전술했듯 최근까지도 이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근소한데, 이는 1차 자료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데다 북한과 베트남 자료의 부재로 자료접근성에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사안들에 관해 베트남 측 사료의 공개·발굴을 통한 미시적 접근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본 논문이 베트남전쟁기의 남북한·남북베트남 각각의 관계와 한국의 베트남 파병, 북한의 베트남전 지원에 관한 베트남 소재 자료를 검토 및 소개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본 연구는 1차 사료의 부재로 인한 한계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구의 제한을 타개할 베트남 측 사료의 발굴을 위해 베트남 전쟁 시기(1954년~1975년)³⁾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에서 발행된 남북한

사」가 있으나 해당 연구는 베트남 자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베트남에서 1975년 이전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자료의 한계가 있다. 윤충로, 『베트남과 한국의 반공독재국가형성사』, 선인, 2005, 참조.

- 3)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전쟁기를 1954년부터 1975년 4월 30일까지로 정의하였다. 베트남전은 베트남사에서 ‘항미-조국통일전쟁’이라고 불리며, ‘통일전쟁’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분단과 통일을 기준으로 한다. 1954년 디엔비엔푸(Diện Biên Phủ) 전투를 끝으로 프랑스가 물러난 뒤 제네바 협정에 따라 베트남은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남베트남 지엠 정부는 통일선거를 거부하며 통일운동세력을 공산당으로 몰아세워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들어갔다. 한편, 1954년부터 미국은 남베트남에 대한 경제 원조 계획을 발표하였고, 1955년부터 남베트남에 군사고문단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 보호는

관련자료를 포함, 베트남국립자료센터(National Archives Center) 소재 자료 및 기타 베트남 도서관의 자료들을 소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관찬사료는 주로 베트남정부의 내무부 직속 국가문서보관국(State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Department of Vietnam)에서 관리 및 보관을 담당하고 있으며, 제1, 2, 3, 4 국립자료센터가 있다. 해당 자료센터들은 2001년부터 자료 열람을 허용했으며 내·외국학자들, 특히 미국학자들이 소재 자료들에 접근하기 시작했다.⁴⁾

제1, 2, 3, 4 국립자료센터는 자료를 시기별·지역별로 나누어 보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 국립자료센터는 베트남의 봉건시대부터 식민지시기의 자료를 보관하며, 지리적으로 베트남의 북중부에 위치한 꽝 빙(Quảng Bình) 성부터 북쪽 구역까지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제3 국립자료센터는 지리적으로는 제1 센터와 동일한 구역을 공유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식민지시기 이후, 즉 194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제4 국립자료센터에는 봉건시대부터 식민지시기의 자료, 또한 현재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시기의 자료, 지리적으로 베트남의 꽝 빙(Quảng Bình)

베트남 남북 모두의 군사 동맹 가입을 제한한 제네바 협약을 위배한 것이며, 제국주의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려는 베트남인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네바 협정에 의거한 베트남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비폭력투쟁 진행이 '항미-조국통일전쟁'의 시작이었다. 1973년 평화협정 이후에도 베트남은 통일되지 못했고, 1975년 4월 30일 베트남공화국의 항복으로 비로소 전쟁이 종결되었다.

- 4) 베트남국립자료센터의 자료를 활용한 베트남전쟁 관련 대표적 연구성과들은 다음을 참조. Pierre Asselin, *Hanoi's road to the Vietnam War, 1954~1965*(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3); Lien-Hang T.Nguyen, *Hanoi's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of the War for Peace in Vietnam, The New Cold War History Series*(Chapel Hill: UNC Press, 2012); Ku Su Jeong, 「Mỗi Quan hệ Việt-Hàn trong và sau chiến tranh của Mỹ tại Việt Nam(1955~2005), Đại học Quốc gia TP Hồ Chí Minh, Đại học KHXH và NV, Luận án Tiến sỹ Lịch sử, Hồ Chí Minh 2008 [구수정, 「베트남에서 일어난 미국의 전쟁과 그 이후 한·베 관계 (1955~2005), 박사학위논문, 호치민 국립 대학교 인문사회대 사학과, 2008.] 등.

성과 접경한 꽝 쩌(Quảng Trị)성부터 빙 투언(Bình Thuận)성까지, 그리고 데이 응우옌(Tây Nguyên)의 구역(주로 베트남의 중-남 중부구역)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2 국립자료센터는 지리적으로 빙 투언(Bình Thuận)성과 데이 응우옌(Tây Nguyên)과 접경한 동 나이(Đông Nai)성부터 남쪽 구역까지의 자료, 시기적으로는 베트남 봉건시대부터 식민지시기, 베트남공화국 시기, 그리고 현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시기까지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제1, 2, 3, 4 국립자료센터 중 제2, 제3 자료센터는 베트남전쟁 시기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두 센터에서는 베트남민주공화국(북베트남)시기, 베트남공화국(남베트남) 시기, 그리고 현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이르기까지 각 개인 또는 기관·조직들이 그 활동 과정에서 발행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다. 즉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발행한 베트남 자료 및 남북한정부 관련 문서들은 제2와 제3 자료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다. 해당 자료센터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남북베트남정부와 남북한정부의 관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저장소이고, 때문에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⁵⁾

그 외에,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베트남 전쟁 시기 남·북 베트남정부가 발행한 신문 자료, 회고록, 저서 등을 소개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베트남의 각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전쟁 시 북베트남 및 현재까지 베트남에서 발행한 신문 자료, 회고록, 저서 등은 하노이에 위치한 ‘베트남국립도서관(Thư viện Quốc gia Việt Nam)’과 ‘베트남군대도서관(Thư viện Quân đội)’

5) 베트남국립자료센터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열람을 허용하고 있으며, 자료 열람을 위해서는 방문 시 신분증 혹은 여권을 제출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에 대한 승인 이후 자료 열람이 가능하다. 단, 연구 목적으로 자료를 열람할 경우에는 연구계획서가 필요하며 학교 혹은 기관의 추천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베트남 국가문서보관국의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www.archives.gov.vn>).

에서 보관되어 있다. 한편, 베트남전쟁시기 남베트남에서 발행된 신문자료 및 연구성과, 저서 등은 현재 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한 ‘호치민종합도서관(Thư viện Khoa học tổng hợp Hồ Chí Minh)’에서 보관하고 있다. 본 논문은 각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남북한 관련 자료를 소개할 것이다.

2. 베트남 소재 남·북한 자료 개관 및 구성

가. 하노이 시 소재 제3 베트남국립자료센터

하노이에 위치한 제3 베트남국립자료센터(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3)는 국가문서보관국(State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Department of Vietnam)의 4개의 국립 자료 센터 중 하나로, 1995년에 세워진 베트남에서 가장 큰 자료 센터이다. 이곳에서는 개인 및 중앙 조직이나 기관의 활동 과정에서 발행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보관된 자료의 범위는 지리적으로 베트남의 중부에 위치한 팡 빙(Quảng Bình) 성부터 북쪽 구역까지이고, 시기적으로는 베트남민주공화국(1945~1975년), 그리고 현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이르기까지의 자료들이다. 즉 베트남민주공화국(즉, 전시 북베트남정부)의 활동에 대한 자료 수집, 정리, 편찬을 바로 이 제3 센터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센터는 1950~1970년대 북베트남정부와 북한정부의 관계 및 북한의 베트남전 지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겠다.

제3 국립자료센터에 보관된 자료들은 베트남민주공화국이 창건된 시기부터 현재까지 설립된 중앙기관, 정부 기관의 부서, 분과(지부),

각 조직 단체의 활동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보관한 자료는 수십 년 동안 베트남국가의 창건, 건설, 독립 투쟁 과정에 대한 전체적·객관적·실질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3 국립 자료센터의 자료는 ① 행정 자료, ② 과학기술 자료, ③ 사진, 녹음, 비디오 자료, ④ 개인적 차원의 자료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행정 자료의 수량은 총 246문서군이며, 제3 국립자료센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자료들은 1차 사료이며, 호치민과 여러 지도자들의 자필원고나 필적이 있는 자료들까지 포함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것이다.

행정 자료 중 제일 중요한 자료들은 베트남정부의 최고 기관인 국회가 발행한 자료이며, 이는 ‘국회 문서군(phông Quốc hội)’에 배치되었다. ‘국회 문서군(phông Quốc hội)’에는 1946년부터 베트남민주공화국의 제1차 국회 총선거에 대한 문서, 자료가 보관되어 있으며, 그동안 열린 국회 회의에 대한 서류, 1975년 통일협상회의에 대한 서류 등도 포함되어 있다. 즉, ‘국회 문서군’의 자료는 전반적으로 베트남민주공화국 및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가 법률을 작성하여 발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법적 활동 자료들이 모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총리관저(Phủ thủ tướng)’ 출처의 1945년부터 생산된 자료들은 제3 국립자료센터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며, 그 규모도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총리관저 문서군(phông Phủ thủ tướng)’에 배치되었으며 이 문서군은 경제-교육-행정-문화 등과 같은 베트남의 모든 사회분야, 또한 베트남 정부가 발행한 정부수립 정책, 전쟁 시 정책까지 포함함으로써 그 분야와 내용 역시 다양하다. 이외에 제3 자료센터는 내무부, 공업(산업)부, 농림부, 교통부, 교육부 등의 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제3 베트남국립자료센터의 행정 자료 구성은 문서군 > 폴더(Folder, 서류철)로 나누어 있다. 자료 열람 및 검색은 전자화되어 이용이 가능하나, 전자 검색 시스템이 2014년까지는 잘 활용되지 못했다. 따라서 자료목록책(Index Book)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즉 문서군의 목록책 안에 기록된 폴더(Folder)의 제목으로 찾는 것이다. 이후부터는 직접 관련자료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또한, 제3 센터는 베트남 내무부의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료 열람에 근본적인 제한이 있다. 특히 당시 기밀정보자료라는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제3 베트남국립자료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베트남전쟁 시기 북베트남 정부와 북한정부의 합작 및 북·베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자료들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약 500폴더가 있다. 폴더들은 다음의 4가지 문서군에 각각 배치되었다.

1) ‘총리관저(Phủ thủ tướng)’ 문서군

제3 자료센터의 ‘총리 관저(Phủ Thủ tướng)’ 문서군은 1945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민주공화국(북베트남)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통일된 베트남)의 총리관저에서 발행한 자료들이며, 베트남 전쟁 시기 북한과 관련된 자료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첫째로는 문화예술 부문으로, 북한과 북베트남의 예술, 문화, 스포츠, 교육 등 교류 활동에 대한 문서들이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부문은 북한과 북베트남의 과학기술, 농·어업, 조선(造船)업 등과 같은 분야의 합작·협력 및 경험 교류에 대한 문서이다. 그리고 경제 부문은 북한과 북베트남의 상품 교환 및 무역에 대한 계획서 및 체결 협정서 등이 포함된다. 또한 행정기록 부문에서는 북한 주민의 베트남 체류자격 발급 및 그 연장 관련 문서, 북한과 북베트남의 지도, 양국의 단체 및 조직들의 상호 방문 및 시찰에 대한 문서 및 보고,

베트남전쟁 시기 북베트남에게 도움을 준 북한 전문가에 대한 공적(功績) 훈장 수여 제의 및 그 명령 관련 문서(1960년, 1965년, 1966년, 1967년, 1969년, 1970년, 1971년, 1974년)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북베트남 지원 관련 부문은 베트남에 북한이 지급한 지원금 및 상품 관련 보고서 등이다.

2) ‘국회(Quốc hội)’ 문서군

제3 자료센터의 ‘국회(Quốc hội)’ 문서군은 1945부터 현재까지의 베트남민주공화국(북베트남)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통일된 베트남)의 국회(Quốc hội)가 발행한 자료들이며, 베트남전쟁기 북한 관련 자료들은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最高人民會議)과 북베트남 국회의원들의 상호 방문 및 시찰에 대한 문서 및 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둘째, 북베트남의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교환한 문서, 편지, 헌사(하장) 등이며 여기에는 북베트남 국회가 요청·호소하는 문제에 대해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입장을 다룬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요청·호소하는 문제에 대한 북베트남의 입장이 적힌 문서도 여기에 속하며, 특히 한반도 통일 문제와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와 관련된 자료의 비중이 비교적 많다. 해당 문서군의 몇몇 문서들은 한글로 작성되었다.⁶⁾

3) ‘전문가 관리국(Cục Chuyên gia)’ 문서군

베트남 전쟁기 북베트남에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외국인 전문가를 필요로 했으며, ‘전문가 관리국’은 주로 이를 위해 파견된 전문가들을 관리하는 기관이었다. 제3 자료센터의 ‘전문가 관리국

6)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북베트남 국회에 발송한 한글 문서는 한국 학계에게 연구 활용성이 높은 자료이며 이 문서들 중 한 문서를 첨부하였다. 부록의 <그림 3> 참조.

(Cục Chuyên gia)’라는 문서군은 1945년부터 현재까지의 베트남 민주공화국(북베트남)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통일된 베트남)의 ‘전문가 관리국(Cục Chuyên gia)’라는 기관이 발행한 자료들이다. 베트남 전쟁 시기 북한 관련 자료들은 이렇듯 북한에서 파견된 전문가의 활동과 생활에 대한 자료들이 대부분이었다.

파견된 북한전문가들에 대한 기록은 제3 자료센터의 ‘전문가 관리국(Cục Chuyên gia)’ 문서군에 남았고, 전문가들은 주로 북베트남의 다음과 같은 기관으로 파견되었다. 북베트남의 교통 및 운송부(조선소), 북베트남의 수리부, 북베트남의 라디오 방송국, 북베트남의 문화부, 북베트남의 공업(산업)부이었다.

4) ‘국가계획위원회(Uỷ ban kế hoạch nhà nước)’ 문서군

제3 자료센터의 ‘국가계획위원회(Uỷ ban kế hoạch nhà nước)’라는 문서군은 1945년부터 현재까지의 베트남민주공화국(북베트남)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통일된 베트남)의 국가계획위원회(Uỷ ban kế hoạch nhà nước)라는 기관이 발행한 자료들이다. 국가계획위원회는 주로 정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기관이었다. 따라서 해당 문서군에 포함된 자료들은 주로 1950년대부터 1975년까지의 과학기술, 농·어업 부문에서 북한과 북베트남의 협력 및 활동에 대한 것들이었다.

나. 호치민 시 소재 제2 베트남국립자료센터

제2 베트남국립자료센터(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는 호치민시에 위치하고 있다. 국가문서보관국 소속 4개의 국립 자료센터 중 하나인 제2 자료센터는, 앞서 소개한 제3 센터와 함께 베트남에서 가장 큰 자료 센터이다. 제2 자료센터는 각 개인 또는 기관,

조직 활동 과정에서 발행한 자료를 보관하는 기관이다. 보관된 자료의 범위는 지리적으로는 베트남의 남부 입구(入口)에 위치한 동나이(Đông Nai) 성부터 남쪽 구역까지의 자료이고 시기적으로는 베트남 봉건시대부터 식민지시기, 베트남공화국 시기, 그리고 현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시기까지의 자료이다. 제2 베트남 국립 자료센터는 베트남공화국(즉 전시 남베트남정부, 1955~1975년)의 활동에 대한 자료 수집, 정리, 편찬을 하는 데이터 센터로, 1950년대 후반~1970년대 남베트남정부와 한국정부의 외교관계 및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과 관련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 필수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장소이다.

제2 국립자료센터는 총 55문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 행정자료, ② 과학기술 자료, ③ 사진, 녹음, 비디오 자료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행정자료는 베트남 봉건시대부터 식민지시기, 베트남공화국 시기, 그리고 현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시기 남베트남의 군사, 경제, 정치, 문화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를 반영한 관찬자료이다. 다음은 행정자료의 대표적 문서군들이다.

- 남부 총독(Thống đốc Nam kỳ)⁷⁾
- 정부 대표기관(Toà đại biểu Chính phủ)⁸⁾
- 베트남공화국의 총리 관저(Phủ Thủ tướng Việt Nam Cộng hoà)
- 제1 베트남공화국의 대통령 관저(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ất Việt Nam Cộng hoà)
- 제2 베트남공화국의 대통령 관저(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ị Việt Nam Cộng hoà)

제2 베트남국립자료센터의 자료 구성은 문서군 > 폴더(Folder,

7) 식민지시기 남부의 총독

8) 제1 베트남공화국시기 남베트남은 4구역으로 나뉘었으며, '정부 대표기관'은 각 구역의 행정관리 기관이었다.

서류철)로 나누어져 있다. 제2 베트남국립자료센터에서 자료를 찾는 방법은 전자검색으로 가능하며, 기관에 설치된 컴퓨터로 필요한 단어와 주제를 검색하면 검색 결과와 관련된 폴더의 번호 및 문서군의 제목이 나온다. 제2 베트남국립자료센터의 특징은 특별한 자료를 제외할 경우 거의 모든 자료의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남베트남정부의 기밀정보자료라는 표시가 있을 경우에도 열람이 가능한 것이 주목된다.

제2 베트남국립자료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베트남전쟁기 남베트남 정부와 한국정부의 외교-경제-군사 관계에 대한 대표적 문서들은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약 300폴더가 있다. 폴더들은 다음의 4가지 문서군에 각각 배치되었다.

1) ‘베트남공화국의 총리 관저(Phủ Thủ tướng Việt Nam Cộng hoà)’ 문서군

해당 문서군은 1955년부터 1975년까지의 남베트남의 총리 관저에서 발행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베트남의 행정, 경제, 국방, 외교, 정치 자료를 포함한다. 베트남전쟁기 한국과 관련된 자료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첫째, 베트남에서의 한국군의 활동과 관련하여 1965~1973년 한국 군대의 파병에 대한 보고서, 남베트남군과 한국군의 합동 전투에 대한 보고서 및 한국군에 대한 명예훈장 수여 제의 및 명령 관련 문서(1965년, 1966년, 1967년, 1968년, 1969년, 1970년)들이 있다. 둘째, 행정적 처리와 관련하여 1950년대 후반~1975년 한국인의 남베트남 체류자격 발급 및 연장 보고서가 포함된다. 셋째로 경제 교류 분야에는 1950년대 후반~1975년에 이르기까지 농업, 은행, 시설, 건설 분야 등에서 남베트남과 한국의 교류 보고서 및 남베트남과 한국의 경제-기술 협력 조약문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외교 및 정치 부문에는 1950년대 후반~1975년까지의 남베트남과 한국의 개인, 단체, 조직들 간 방문 및 시찰 현황 보고서, 1964~1967년 한국과 남베트남이 참여한 아시아 반공연맹에 대한 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2) ‘제1 베트남공화국의 대통령 관저(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ất Việt Nam Cộng hoà)’ 문서군

해당 문서군은 1955년부터 1963년까지 베트남공화국의 대통령 관저가 발행한 행정, 경제, 국방, 외교 자료를 포함한다. 베트남전쟁기 대한민국과 관련된 자료들은 주로 다음과 같다.

1957년 응오 딘 지엠(Ngô Đình Diệm) 대통령의 한국 방문 보고서, 1958년 이승만 대통령의 남베트남 방문 보고서, 1956년부터 1960년까지의 남베트남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 간 교환한 문서, 편지, 헌사(하장) 등이 포함된다. 특히 1960년과 1961년에 발생한 한국의 정치적 위기와 전후 동태에 대한 주한남베트남 대사의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3) ‘국가지도위원회(Uỷ ban lãnh đạo Quốc gia)’ 문서군

1963년 남베트남 쿠데타 이후, 남베트남정부는 1967년까지 군사정부였다. 군사정부는 1965년에 국가지도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이는 1967년까지 존속하였다.⁹⁾ 해당 문서군은 1965년부터 1967년까지 국가지도위원회가 발행한 문서들을 포함한다. 베트남전쟁기 대한민국에 관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1965~1967년 사이 베트남에서의 한국군의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 군대 파병에 대한 보고서, 남베트남의 군대와 한국군의 합동 전투에 대한 보고서, 한국군에 대한 훈장 수여 제의 및 명령 관련

9) 국가지도위원회는 총리와 같이 국가를 지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문서(1965년, 1966년, 1967년)이다. 둘째로 외교·정치 부문에서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의 남베트남 방문에 대한 보고서, 1966년 한국 민중당 총재 박순천과 대변인 김대중의 남베트남 전선 방문에 대한 보고서가 포함된다. 해당 문서군에는 1966~1967년 남베트남과 한국의 경제-군사-문화 조약에 대한 보고서 역시 포함되어 있다.

4) ‘제2 베트남공화국의 대통령 관저(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ị Việt Nam Cộng hoà)’ 문서군

해당 문서군은 1967년부터 1975년까지의 베트남공화국 대통령 관저에서 발행한 행정, 경제, 국방, 외교 자료를 포함한다. 베트남 전쟁기 한국과 관련된 자료들은 주로 다음과 같다.

외교·정치 부문에서는 1967~1975년 남베트남과 한국의 외교관계에 대한 보고서, 남베트남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교환한 문서, 편지, 헌사(하장) 등이 포함된다. 특히 1969년 남베트남 응우옌 반 티에우(Nguyễn Văn Thiệu) 대통령의 한국 방문 보고서가 주목된다.¹⁰⁾ 한편, 1968~1969년 남베트남과 한국의 심리전위원회 설립에 대한 보고서, 1968~1974년 한국의 정치 상황 및 대외 정책에 대한 보고서(한국의 정치상황, 반정부시위, 한미관계 문제, 남북한 관계 문제 등)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에서의 한국군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1967~1973년 베트남에서 한국군의 활동과 철수를 다룬 보고서 9편이 있다. 경제부문에서는 1967~1975년 농업, 은행, 시설, 건설 등의 분야에 대한 남베트남과 한국의 경제적 교류 문서 및 보고서가 포함된다.

10) 1969년 응우옌 반 티에우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관련된 문서들 중 하나를 첨부하였다. 부록의 <그림 4> 참조. 한편, 응우옌 반 티에우 대통령의 한국 방문 서류철에는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의 남베트남 방문과 관련된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글에서는 이 문서들 중 하나를 첨부하였다. 부록의 <그림 5> 참조.

다. 기타 자료

1) 신문 자료

베트남전쟁 시기 남북한과 관련해 발행된 베트남의 신문 자료는 베트남민주공화국(북베트남)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통일된 베트남)과 베트남공화국(남베트남)에서 발행된 신문을 포함한 것이다.

첫째, 1945년부터 현재까지 북베트남(1945~1975년) 및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1976년~현재)이 발행한 신문들 중 베트남전쟁 시기를 대표하는 『인민신문(Báo nhân dân)』이 있었다.¹¹⁾ 『인민신문(Báo nhân dân)』에는 한반도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고 1964년부터 한국이 베트남 파병을 시작하자 한국군에 대한 내용도 신문에 보도되었다. 한편,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 또한 북한과 관련된 내용 역시 신문에 보도되었다. 『인민신문(Báo nhân dân)』의 원본은 ‘베트남국립도서관(Thư viện Quốc gia Việt Nam)’에 보관되어 있다. 베트남국립도서관은 베트남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며 베트남의 모든 분야의 자료를 보관하는 기관이다. 이곳에는 신문 외에도 북베트남 및 현재 베트남이 발행한 저서, 회고록, 연구성과들이 보관되어 있다. 베트남국립도서관의 웹사이트(<http://nlv.gov.vn>)에서는 해당 문서들의 제목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는 『인민신문』의 신문목록 및 일부 연도의 원문들이 pdf파일로 보관되어 있다.(1951년, 1954년, 1961년, 1968년, 1971년, 1975년, 1979년)

그 외에, 1945년부터 현재까지 북베트남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국방부가 출판한 신문으로는 베트남전쟁 시기 『인민군대신문(Báo Quân đội nhân dân)』이 대표적이다.¹²⁾ 베트남전쟁 당시

11) 『인민신문(Báo nhân dân)』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nhandan.com.vn>)를 가지고 있으나 2000년 이전의 기사 및 신문목록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12) 『인민군대신문(Báo Quân đội nhân dân)』은 홈페이지(<http://www.qdnd.vn>)를 가지고 있으나 2005년 이전의 기사 및 신문목록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인민군대신문(Báo Quân đội nhân dân)』은 북한인민군대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고, 한편으로, 1964년 한국의 베트남 파병 이후 부터는 한국군에 대한 내용도 보도하였다. 특히 남베트남에서의 전쟁상황 및 한국군과의 전투에 대한 내용이 핵심내용이었으며, 한국군이 북한으로 이양된 사실도 이 신문을 통해서 보고되었다. 『인민군대신문(Báo Quân đội nhân dân)』의 원본은 ‘베트남군대도서관(Thư viện Quân đội)’에 보관되어있다.¹³⁾

둘째, 베트남공화국(남베트남)이 발행한 신문은 1950년대 후반~1970년대 남베트남과 한국의 외교관계 및 베트남전에 한국의 파병에 관한 자료이며 필수적으로 열람해야 할 자료이다. 호치민시에 위치한 ‘호치민 종합 도서관(Thư viện Khoa học tổng hợp Hồ Chí Minh)’이 그 대표적 장소이다.¹⁴⁾ 호치민 종합도서관의 소장자료들 중 베트남전쟁기 한국에 관한 대표적인 신문들은 『두억냐 남(Được nhà nam)』, 『띤 상(Tin sáng)』, 『띤 히에우(Tim hiếu)』, 경제신문인 『쩐 흥 긴 떼(Chấn hưng kinh tế)』 등이 있다. 해당 신문들은 당시 한반도의 분단 상황, 한국의 경제·사회, 또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문제까지 다뤘다.

13) 베트남군대도서관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방부의 도서관이며 국방부가 출간한 자료를 보관하는 도서관이다. 자료는 전자검색이 가능하지만, 기관에 설치된 컴퓨터로만 가능하다. 해당 장소에서 『인민군대신문』의 목록을 검색할 수 있다. 베트남군대도서관의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thuvienquandoi.vn>.

14) 호치민종합도서관(Thư viện Khoa học tổng hợp Hồ Chí Minh)는 1975년 이전 베트남공화국의 국립도서관이었으며 통일 이후 베트남공화국 시기와 현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시기까지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호치민종합도서관의 웹사이트(<http://www.gslhcm.org.vn>)를 통해서 저서, 논문, 신문 등의 제목을 검색할 수 있으나, 베트남공화국(1955~1975년)이 발행한 자료인 경우에는 기관에 설치된 컴퓨터로 검색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계획서가 필요하며, 학교 혹은 기관의 추천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2) 회고록, 저서

베트남전쟁기 북베트남이 발행한 남북한 관련 자료들은 저서와 회고록들이 대부분이며, 그 양이 상당하다. 주로 북베트남과 북한의 공동연대, 한국전쟁, 또한 북한의 정치, 교육, 문학, 예술, 경제 부문에 관련된 자료들이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에서 북·베 공동연대의식 형성 과정에 관한 저서 및 회고록들은 1950년대부터 생산되었다. 이 저서들을 통해 당시 북베트남정부가 가졌던 북한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로 나온 저서는 1952년 호앙 꾸옥 비엣(Hoàng Quốc Việt)와 화이 타인(Hoài Thanh)의 회고록인 『Triều Tiên anh dũng; Một tháng ở Triều Tiên [영웅적인 북조선; 북조선에서의 한 달]』이었다.¹⁵⁾ 또한, 1954년 7월 제네바협정으로 하노이가 프랑스로부터 독립된 이후, 1955년 8월 7일 백남운¹⁶⁾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 인민 대표단’과 인민 군대예술단이 처음으로 하노이를 방문하였고, 『Những ngày ở Hà nội của đoàn đại biểu Triều Tiên [조선대표단이 하노이에 체류하는 시간]』이 출판되었다. 이 사진첩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조선 인민 대표단’과 인민 군대예술단이 베트남 현지에서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전개했고, 이를 통해 북한과 북베트남의 유대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¹⁷⁾

15) Hoàng Quốc Việt - Hoài Thanh, 『Triều Tiên anh dũng; Một tháng ở Triều Tiên』, Ủy ban bảo vệ hoà bình thế giới của Việt Nam xuất bản, 1952. [호앙 꾸옥 비엣, 화이 타인, 『영웅적인 북조선; 북조선에 있는 한 달』, 베트남: 세계평화보호위원회, 1952.].

16) 북한의 경제학자이자 정치가. 1948년 8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9월 교육상, 1952년 과학원 원장, 1956년 민주과학협회 위원장, 1961년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1969년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거쳐 1974년 조국전선 의장을 지냈으며, 1979년 사망하였다.

17) 『Những ngày ở Hà nội của đoàn đại biểu Triều Tiên』, Sở văn hoá Hà Nội, 1955. [저자 미상, 『조선대표단이 하노이에 체류한 시간』, 하노이: 하노

한편, 1950년대 아동문학과 조선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베트남의 문학가들은 작품을 발간하거나 북한의 문학작품을 번역하였다. 대표적으로, 1953년 출판된 『Phác Kim Tố, em thiếu nữ du kích Triều Tiên [팍 김 토, 조선의 유격 소녀』가 있는데, 이는 응우옌 쑤언 싸인(Nguyễn Xuân Sanh) 시인이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꼬마 애국자”를 주제로 1953년에 발간한 아동 소설이다. 또한 1954년에 나온 『Triều Tiên chiến đấu : Thơ Triều Tiên [조선의 전투: 조선의 시』라는 북한의 시집은 베트남의 유명한 시인 황 쑹 통(Hoàng Trung Thông)에 의해 번역된 것이다.¹⁸⁾ 문학과 예술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는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계속적으로 1960년대, 1970년대 전반까지 북한의 농업·공업의 발전 경험, 또한 북한의 교육 시스템 등에 관련한 많은 저서들이 출판되었다.¹⁹⁾ 특히 1960년대 중반 미국이 베트남에서 전선을 확장하여 북베트남 폭격을 시작한 시점부터 북베트남은 미국

이 복지문화국, 1955년]. ‘저자 미상’이라는 의미는 저자를 알 수 없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특정 단체에서 발간한 책이기 때문에 저자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 18) Nguyễn Xuân Sanh, 『Phác Kim Tố, em thiếu nữ du kích Triều Tiên』, NXB Ngành văn nghệ trung ương, 1953(Sách kim đồng), số 5 [응우옌 쑤언 싸인, 『팍 김 토, 조선의 유격 소녀』, 하노이: 문예 출판사, 1953 (아동책), 제5호]; Triệu Cơ Thiên, Kim Thường Ngọc 『Triều Tiên chiến đấu : Thơ Triều Tiên』, Hoàng Trung Thông dịch. H. : Văn nghệ, 1954. [조시천(趙基天), 김상오(金尙午), 『조선의 전투: 조선의 시』, 황 쑹 통 옮김, 하노이: 문예 출판사, 1954].
- 19) Trần Phong, 『Nông thôn Triều Tiên trên đường hợp tác hoá』, H: Phổ thông, 1959 [전 풍, 『조선의 농업합작화』, 하노이: 보통 출판사, 1959]; Võ Thuần Nho, 『Một số kinh nghiệm giáo dục của Cộng hoà dân chủ nhân dân Triều Tiên』, H. : Giáo dục, 1962 [보 투언 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교육경험』, 하노이: 교육 출판사, 1962]; 『Hệ thống quản lý công nghiệp của Triều Tiên』, - H: Sự thật, 1966 [저자 미상, 『조선의 공업관리시스템』, 하노이: 진실 출판사, 1966]; Nguyễn Ngọc Tuấn, 『Công cuộc công nghiệp hoá xã hội chủ nghĩa ở nước cộng hoà dân chủ nhân dân Triều Tiên』, H. : Khoa học xã hội, 1970. [응우옌 응옥 두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공업화』, 하노이: 사회과학 출판사, 1970].

과의 전쟁을 이미 경험했던 북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북한이 겪었던 ‘항미조국해방전쟁’에 대한 책들이 출판되었다.²⁰⁾

이 책들을 통해 당시 북베트남이 북한에 대한 어떠한 관심과 시각을 가졌는지, 또한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에 대한 분위기와 그 인식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저서들은 현재 ‘베트남국립도서관(Thư viện Quốc gia Việt Nam)’, ‘베트남군대도서관(Thư viện Quân đội)’에서 보관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 각 도서관의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베트남 소재 자료들뿐 아니라 북한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해당 자료들은 주로 북한의 외문(外文) 출판사가 베트남어로 발행한 저서들이었으며, 내용은 주로 김일성의 인생과 사업, 북조선노동당 관련 자료 및 북한의 선전자료들이었다.²¹⁾

이렇듯, 북한 관련 내용을 다룬 회고록 및 저서들은 북베트남에서 활발히 출판되었으나, 베트남 전쟁기에 남베트남에서는 한국 관련 회고록이나 저서가 거의 집필되지 않았으며 그 비중이 비교적 적다. 북베트남과 북한 간에 활발한 문화 교류 활동, 자료의 수집 및 교환이 이루어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당시 사회주의공동체의 보편적 특징에 기인한다. 실제로, 자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면서 소련과 중공을 위시한 “형제국가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문화를 도입하려는 북한의 대외 전략은 1955년에 개시되어 그 이후 본격적인

20) Viện nghiên cứu Lịch sử thuộc viện Hàn lâm khoa học nước CHDCND TT, 『Lịch sử cuộc chiến tranh chính nghĩa giải phóng tổ quốc của nhân dân TT』, Lê Anh - Hồ Phan - Võ Nam dịch, NXB Quân đội nhân dân, 19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사연구원,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역사』, 레 아인, 호 판, 보 남 옮김, 하노이: 인민군대 출판사, 1965.]

21) Kim Nhật Thành, 『Báo cáo Tổng kết công tác của Ban chấp hành Trung Ương Đảng Lao động Triều Tiên (tại Đại hội Đảng Lao động TT lần thứ 5 năm 1970)』, Bình Nhưỡng, Ngoại văn, 1971. [김일성, 『1970년 조선노동당 제5차대회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활동 보고』, 외문(外文) 출판사, 평양, 1971.]

실현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²²⁾

3) 연구 성과

베트남전쟁 시기 한반도 관련 베트남의 연구성과는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에서 발행된 연구성과 및 현재 베트남의 연구성과를 포함한 것이다. 우선, ‘호치민종합도서관(Thư viện Khoa học tổng hợp Hồ Chí Minh)’의 DB에 보관된 베트남전쟁 시기 남북한에 관한 남베트남의 연구성과는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 1970년대에 나온 학사학위논문 2편이 있다. 한국의 대외정책 및 한국의 민주주의와 관련한 주제로 진행된 두 연구는 한국·남베트남의 관계, 또한 남북한 통일 문제에 대한 당시 남베트남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었다.²³⁾

베트남전쟁 당시 북한 관련 내용을 다룬 저서들은 북베트남에서 활발히 출판되었지만, 북베트남에서 한반도에 관해 발행한 연구논문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없다. 실제로, 당시 북베트남의 중심부 하노이에까지 미국의 폭격이 미쳤을 정도로 전쟁이 치열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연구 현황이 미흡한 것은 당연하였다.

남북한 관련 현재 베트남의 연구성과는 최근까지 파악한 결과 총 18편이 있으며 주로 ① 한국·남베트남의 관계²⁴⁾, ② 한국의 베트남

22) 송영, 『월남일기』,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253~254쪽, 윤대영, 「1950년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와 문화 교류: 1956년 조선 문화 대표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역사와 경계』 제87집, 2013. 6, 199쪽에서 재인용.

23) Nguyễn Trung Quang, 「Tiến trình dân chủ tại Đại Hàn」, Sài Gòn : Học viện Quốc gia Hành chính, 1972 [응우옌 중 광, 「대한에서의 민주주의의 경과」, 학사학위논문, 국립행정연구원, 사이건, 1972]; Nguyễn Thị Ngọc Oanh, 「Chính sách đối ngoại của Đại Hàn」, Sài Gòn : Học Viện Quốc gia Hành chính, 1974. [응우옌 티 응옥 와인, 「대한의 대외정책」, 학사학위논문, 국립행정연구원, 사이건, 1974.]

24) 대표적 연구성과들은 다음을 참조. Ku Su Jeong, 「Mối Quan hệ Việt-Hàn trong và sau chiến tranh của Mỹ tại Việt Nam (1955-2005)」, Đại học Quốc gia TP Hồ Chí Minh, Đại học KHXH và NV, Luận án Tiến sĩ

남전 파병²⁵⁾, ③ 북한의 북베트남 지원, 공군 파견²⁶⁾, ④ 남북한 관계에 대한 석·박사 학위 논문 및 연구 저서들이다.²⁷⁾ 이 중 주목할 점은, 베트남 국방부의 자료를 활용해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과 북한의 공군 파견에 대한 주제를 살피는 연구성과가 존재했다는 것이다.²⁸⁾ 따라서 해당 자료들은 베트남학계의 연구성과에 나타난 베트남 전쟁의 특징과 남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베트남학계 및 베트남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데 필수적인 2차 자료들이다.²⁹⁾

Lịch sử, Hồ Chí Minh 2008 [구수정, 「베트남에서 일어난 미국의 전쟁과 그 이후 한·베 관계 (1955~2005)」, 박사학위논문, 호치민 국립 대학교 인문사회대 사학과, 2008] 등.

- 25) 대표적 연구성과들은 다음을 참조. Lê Đức Hạnh, 「Cuộc chiến đấu của quân và dân ta chống quân Hàn Quốc trên chiến trường Quân khu 5 (1965~1973)」, Luận án Tiến Sỹ Lịch sử, Viện Lịch sử Quân sự Việt Nam, 2014 [레 득 하인, 「제5군구전투장에서의 한국군과 전쟁 (1965~1973)」, 박사학위논문, 베트남군사역사연구원, 2014]; Bộ quốc phòng, Viện lịch sử Quân sự Việt Nam, 「Quân đồng minh Mỹ trên chiến trường miền nam Việt Nam (1964-1973)」, NXB Quân đội nhân dân, Hà Nội, 2009 [국방부, 베트남군사역사연구원, 『남베트남전투지역에서의 미국의 동맹군(1964~1973)」, 하노이: 인민군대 출판사, 2009] 등.
- 26) 대표적 연구성과들은 다음을 참조. Nguyễn Thị Mai Hoa, 『Các nước XHCN ủng hộ Việt Nam kháng chiến chống Mỹ, cứu nước (1954~1975)」, NXB Chính trị QG, 2000 [응우옌 티 마이 화, 『사회주의국가들의 베트남항미전쟁 지원(1954~1975)」, 하노이: 베트남국가정치출판사, 2000] 등.
- 27) 대표적 연구성과들로는 Nguyễn Thị Giang, 「Quan hệ CHCDND Triều Tiên và Hàn Quốc (từ năm 1948 đến nay)」, Luận văn Thạc sỹ khoa học Lịch sử, ĐH Sư phạm Hà Nội, 1999 [응우옌 티 장,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관계, 1948년~현재」, 석사학위논문, 하노이 사범대학교 사학과, 1999] 등이 있다.
- 28) 베트남 국방부 자료보관센터의 소장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은 군인에게만 주어지며, 일반인은 관람이 불가.
- 29) 베트남 전쟁 시기 남북한 관련 베트남의 연구성과의 구체적 내용 분석과 관련해서는 “도미엔, 「베트남학계의 남·북한 연구 동향 및 쟁점 : 베트남 전쟁 시기(1954~1975년)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50집, 2015. 6.” 참조.

3. 대표적 자료 소개

본 연구는 베트남이 보유한 대표적 자료, 문서들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과 베트남 자료들의 부재로 인한 근본적 한계들로 인해 현재까지 한국 내에서 북한·베트남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근소한 상황이며,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북베트남 관계의 성격과 특징을 대표적으로 반영하는 베트남 소재 자료들을 밝히고자 한다. 이하 소개하는 3가지 자료는 각각 북·베 관계의 형성 과정 및 그 양상의 전반적인 모습을 반영하므로, 상당한 중요한 자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가. 1951년 호앙 꾸옥 비엣의 북한 방문 회고록

현재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한국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할 때부터 북한에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처럼 프롤레타리아 국제연대의 원칙을 지켜 북베트남 측에 서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대두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⁰⁾ 그러나 실제로, 북한과 북베트남의 유대감은 한국전쟁을 통해 1950년부터 형성되었으며, 이후 양국의 관계는 공고해졌다. 이렇게 형성된 1950년대의 연대의식은 1960년대 북한·북베트남 관계의 기초로 작용했기 때문에 북한·북베트남 관계, 또한 북한의 베트남전 지원 문제를 살펴볼 때는 북·베 공동연대의식 형성 과정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950년대에 생산된 베트남 자료들이 아주 중요하며, 이하 소개할 1951년 호앙 꾸옥 비엣의 북한 방문 회고록과 같은 자료가 대표적

30) 와다 하루끼, 『와다 하루끼의 북한현대사』, 남기정 옮김, 창비, 2014, 155쪽; 조진구, 「중소대립, 베트남 전쟁과 북한의 남조선혁명론, 1964~68」, 『亞細亞研究』 Vol.46 No.4, 2003, 230쪽.

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전쟁이 아직 치열했던 시기인 1951년 베트남중앙노동당 위원 호앙 꾸옥 비엣(Hoàng Quốc Việt)³¹⁾을 단장으로 한 ‘베트남인민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방문 이후 회고록이 출판되었다. 현재 베트남국립도서관에서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Triều Tiên anh dũng; Một tháng ở Triều Tiên [영웅적인 북조선; 북조선에 있는 한 달』³²⁾은 주로 호앙 꾸옥 비엣과 화이 타인³³⁾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입국했고, 한 달 동안 머물며 38선이 위치한 지역까지 시찰한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는 북베트남인민대표단을 성대하게 환영했고, 북베트남인민대표단은 북한정부, 군대, 인민에 대해 좋은 인상을 깊게 받았다고 한다.³⁴⁾

실제로 1950년대 한반도와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전개된 정치적 상황은 시기적으로 첫째, 한국전쟁의 시작 및 종결, 둘째,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전개 및 종결, 마지막으로 베트남전쟁(즉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막 시작된 상황이었다. 『영웅적인 북조선; 북조

31) 호앙 꾸옥 비엣(Hoàng Quốc Việt)(1905~1992)은 베트남의 정치가로서, 1951년 베트남중앙노동당 위원, 베트남중앙노동당의 정치부 위원(베트남노동당의 핵심위원), ‘인민 동원 및 선전 위원회(ban Dân vận)’ 의장, 베트남노동총동맹(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ur) 주석, 1960년 베트남 대검찰청 검찰총장, 베·중 우호회 회장, 1977년 베트남조국전선(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포함) 중앙위원회 주석을 지냈다.

32) Hoàng Quốc Việt - Hoài Thanh, 『Triều Tiên anh dũng; Một tháng ở Triều Tiên』, Ủy ban bảo vệ hoà bình thế giới của Việt Nam xuất bản, 1952. [호앙 꾸옥 비엣, 화이 타인, 『영웅적인 북조선; 북조선에 있는 한 달』, 베트남: 세계평화보호위원회, 1952.].

33) 화이 타인(Hoài Thanh)(1909~1982)은 베트남의 유명한 문학 비평가이며, 1950~1956년 베트남중앙노동당 전선위원회 문예위원회(ban Văn nghệ Ban Tuyên huấn Trung ương) 의장을 지냈다.

34) Hoàng Quốc Việt - Hoài Thanh, 『Triều Tiên anh dũng; Một tháng ở Triều Tiên』, Ủy ban bảo vệ hoà bình thế giới của Việt Nam xuất bản, 1952, p.47. [호앙 꾸옥 비엣, 화이 타인, 『영웅적인 북조선; 북조선에 있는 한 달』, 베트남: 세계평화보호위원회, 1952, 47쪽.].

선에 있는 한 달』은 베트남에서 최초로 생산된 당시 북베트남정부가 가졌던 북한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다. 이들의 회고를 통해 우리는 초기 북한·북베트남관계의 특성을 볼 수 있으며, 1950년대 초반 북베트남·북한관계의 시작은 공동연대의식에서 출발한 반(反)제국주의 의식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해당 자료에서는 북한과 북베트남의 반(反)제국주의 공동연대의식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 서술되어 있는데, 북한이 미군에 총격(銃擊)을 가한 것은 바로 베트남이 미군과 프랑스군에게 총격을 가한 것과 같으며, 반대로 베트남이 미국과 프랑스군에 총격을 가한 것은 바로 북한이 미군에게 총격을 가한 것과 같다는 내용이었다.³⁵⁾ 즉 양국은 모두 베트남의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과 한국전쟁을 똑같이 “반침략제국 항쟁”이라고 보고 있었으며 두 전쟁이 밀접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종합적으로, 해당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에 대한 북베트남의 관심의 범주는 ‘한국전쟁이 베트남에 어떠한 경험으로 남았는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5) Hoàng Quốc Việt - Hoài Thanh, 『Triều Tiên anh dũng; Một tháng ở Triều Tiên』 Ủy ban bảo vệ hoà bình thế giới của Việt Nam xuất bản, 1952, pp.5~7. [호양 꾸옥 비엣, 화이 타인, 『영웅적인 북조선; 북조선에 있는 한 달』, 베트남: 세계평화보호위원회, 1952, 5~7쪽.].

나. 1957년 호치민의 북한 방문 연설 관련 자료

DIỄN VĂN CỦA HỒ CHỮ TỊCH
 ĐỌC TRONG CUỘC MÍT TÌNH CHÀO MỪNG CỦA NHÂN DÂN
 BÌNH NHƯNG

Thưa đồng chí Ủy viên trưởng thân mến,
 Thưa đồng chí Thủ tướng thân mến,
 Thưa các đồng chí, các ban, các anh em, chi em thân mến,

Chúng tôi rất sung sướng nhân lời mời thân thiết của đồng chí Ủy viên trưởng, sang thăm nước Cộng hòa dân chủ nhân dân Triều Tiên anh em và hết sức sung sướng được cùng anh chi em thu đô Bình Nhưỡng anh dũng, gặp mặt nói chuyện ở đây. Nội vui sướng này thật không sao nói hết được.

Trước hết, tôi xin thay mặt nhân dân Việt-Nam - các đồng chí cùng đi với tôi, và nhân danh cá nhân tôi, chào mừng nhân dân thu đô Bình Nhưỡng, toàn thể nhân dân Triều Tiên anh hùng, và các vị lãnh đạo của nhân dân Triều Tiên thân mến.

Chúng tôi chân thành cảm ơn sự đón tiếp long trọng và nhiệt tình của các ban.

Việt-Nam và Triều-tiên tuy cách xa nhau ngàn dặm, nhưng gần bó với nhau với mỗi tình anh em thân thiết trong đại gia đình xa xôi chu nghĩa đùm dậu là Liên-xô và Trung-quốc; nhân dân hai nước Việt - Triều chung ta luôn luôn sát cánh với nhau trên con đường đấu tranh chống đế quốc xâm lược, thực hiện thống nhất nước nhà, và xây dựng đời sống hòa bình hạnh phúc, tiến lên xa xôi chu nghĩa.

Nhân dân Việt-Nam lấy làm tự hào có một người bạn chí thân và anh dũng là nhân dân Triều Tiên; nhân dân Việt-Nam rất kính mến và quý trọng nhân dân Triều-Tiên anh em như ruột thịt.

Thưa các ban, các anh em, chi em,

Dưới sự lãnh đạo sáng suốt của Đảng Lao động và Chính phủ công hòa dân chủ nhân dân, các ban đã luôn luôn đoàn kết chặt chẽ trong Mặt trận dân chủ thống nhất Tổ quốc Triều tiên, kháng chiến anh dũng trong những hoàn cảnh hết sức khó khăn. Với sự giúp đỡ cao cả của Liên-Xô, Trung-Quốc, và các nước anh em khác, sự đóng

Bản sao
 TTLTQG III

〈그림 1〉 1957년 호치민의 북한 방문 연설 관련 자료

1957년 7월 7일부터 12일까지 베트남민주공화국 주석 호치민(Hồ Chí Minh)은 북한을 방문하였고, 평양 인민들의 환영회에서 연설하였다. 당시 호치민의 연설과 관련된 자료는 제3 베트남국립 자료센터의 ‘국회 문서군(Phòng Quốc hội), 폴더 649호’에 보관되어 있다.³⁶⁾ 해당 자료가 국회문서군에 배치된 것은 호치민이 북한

36) 자료 기호: TTLTQG III, Phòng Quốc hội, Hồ sơ 649, “Diễn văn của Chủ tịch Hồ Chí Minh đọc trong buổi mít tinh chào mừng nhân dân Bình Nhưỡng nhân dịp đoàn Việt Nam thăm nước CHDCND Triều Tiên 1957”. [제3 베트남국립자료센터, 국회 문서군, 폴더 649호, “1957년 베트남 대표단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방문시 호치민 주석이 평양인민들의 환영회

최고인민회의 의장의 초대를 받고 북한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이 연설에서 호치민은 북한·북베트남의 단결을 호소했다. “...미 제국은 조선 및 베트남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군사기지를 증가하며 긴장상태를 일으키고 있고 사회주의 진영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미 제국의 전쟁도발 음모에 당면했기에, 선두에 선 소련과 중국, 그리고 사회주의 형제국가들은 인류의 평화문제와 사회주의 업적에 책임을 인식하여 단결심을 강화하고 맑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을 증진해야 합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1950년부터 형성된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는 한국전쟁과 공식적인 외교관계 확립을 계기로 공고해지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점차 깊어지게 된 양국의 유대감은 반제국주의 공동연대의식과 사회주의 공동연대의식으로 표출되었다.³⁷⁾ 한편, 1957년 호치민이 북한을 방문한 시기는 미국이 남베트남에 경제 원조를 시작함과 동시에 남베트남에 군사고문단을 파견한 시기와 일치한다. 호치민은 해당 자료에서 북한과 대미항쟁에 힘쓰기 위해 북한·북베트남 연대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당시 북한·북베트남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50년대 후반 북베트남·북한 관계는 최고 지도자의 방문으로써 긴밀한 단계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1950년대 후반 북한·북베트남의 유대 관계는 ‘공동의 적’- 미국에 대항하는 형태로 표출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즉 베트남 분단 이래로, 미국이 남베트남에 원조와 지원을 시작하고 난 이후의 북·베 공동

에서 연설”].

37) 윤대영, 「1950년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와 문화 교류 : 1956년 조선 문화대표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역사와 경계』 제87집, 2013. 6, 187쪽; 도미엔, 「1975년 베트남전 종전과 북한정부의 대응: 베트남자료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48집, 2014. 6, 98쪽.

연대의식은 1950년대 전반의 반제국주의의식에서 반미의식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다. 1955~1975년 북한의 북베트남 지원 상황 관련 자료

제3 베트남국립자료센터의 ‘총리관저 문서군(Phông Phủ thủ tướng), 폴더 9235호’는 2가지 문서를 포함하며 첫 번째는 “1955~1973년 베트남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경제, 과학 기술 관계 총관”이라는 문서이고 두 번째는 “1973~1979년 베트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 과학 기술 관계 총관: 보충”³⁸⁾이라는 문서이다.³⁹⁾ 즉 총리관저에서 1955년부터 1979년까지 양국의 경제, 과학-기술 교류에 대한 상황을 종합한 것이며, 해당 자료들 역시 중요하다.

문서의 내용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북한과 북베트남의 ① 외상 관계, ② 과학기술 합작, ③ 경제 원조에 대한 것이다. 우선, 외상 관계에 관해 이 자료에서 드러난 내용은 1958년부터 북한과 북베트남의 무역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1958년 북한과 북베트남은 상호 상품 교환 협정을 맺었고, 이때부터 북베트남은 북한으로 상품을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언급되었다. 그러나 1965년부터 전쟁이 확장됨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북한과 북베트남의 과학기술 합작 역시

38) 구체적으로 1973~1979년 베트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 과학 기술 관계 상황에 대한 보고.

39) 자료 기호: TTLTQG III, Phông Phủ Thủ Tướng, Hồ sơ 9235, “Tình hình tổng quát về Quan hệ Kinh tế, Kỹ thuật-Khoa học giữa Việt Nam - CHDCND TT 1955~1973, Bổ xung Tình hình tổng quát về Quan hệ Kinh tế, Kỹ thuật-Khoa học giữa Việt Nam - CHDCND TT 1973~1979”. [제3 베트남국립자료센터, 총리관저 문서군, 폴더 9235호, “1955~1973년 베트남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경제, 과학 기술 관계 총관”, “1973~1979년 베트남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경제, 과학 기술 관계 총관: 보충”].

마찬가지로 1958년부터 시작됐다고 언급되었는데, 양국의 전문가들이 서로 방문하여 과학 기술 연구 및 조사와 같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해당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의 경제 원조 보고에 대한 것인데, 이는 1950~1970년대 북·베 관계의 특징을 규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문서의 내용에서 북베트남에 대한 북한의 무상지원이 1965년부터 시작되었고, 1974년까지 총 41.8백만 루블을 무상으로 지원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1965년부터 1968년까지는 지원금액이 3천만 루블에 이르렀는데, 이는 높은 지원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지원은 1969년부터 점점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1970년대에 급격히 줄어들었다. 베트남 총리관저는 해당 문서에서 1969~1972년의 지원금액과 1965~1968년의 지원 금액을 비교하였는데, 후자와 비교했을 때 지원금액은 35%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1973년의 지원 금액 역시 1972년의 2백만 루블과 비교해 절반(50%)으로 줄어들었다. 무상 지원은 1974년부터 중단되었다. 한편 이 문서에서는 북한의 지원금 감소에 대한 원인을 설명했는데, 결정적으로 당시 북베트남의 항미통일정책에 대한 북한 정부의 입장·관점이 달라진 것이 원조액 변화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북한의 베트남 무상지원금액과 관련한 자료이다.


MANG LÃO HAI BIÊN GIỮNG TRUYỀN THỊT
 1965 ĐẾN 1973
 (Liên tay không hoàn lại)

- Năm 1965	:	12 triệu Rúp
- Năm 1966	:	7 "
- Năm 1967	:	5,5 "
- Năm 1968	:	5,7 "
Cộng 4 năm	:	<u>30 triệu Rúp</u>
- Năm 1969	:	4,7 Triệu Rúp
- Năm 1970	:	1,9 "
- Năm 1971	:	2,1 "
- Năm 1972	:	2 "
Cộng 4 năm	:	<u>10,7 Triệu Rúp.</u>
- Năm 1973	:	<u>1,1 triệu rúp</u>
<u>Cộng chung từ 1965 đến 1973 : 41,8 triệu Rúp</u>		
So sánh : 1969 - 1972/1965 - 1968 = 35%		
1973/1972 = 50%		
từ 1955 đến 1964 : không có.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III
CHỨNG THỰC
 Tài liệu được sao từ

Hàng: Phủ Thủ tướng
 Mục lục số: 8 - Hồ sơ số: 2035
 Tủ số: 01 - 3
 Hà Nội, ngày 30 tháng 7 năm 2005.

GIÁM ĐỐC


Trần Xuân Hưng

〈그림 2〉 1965~1973년간 연도별 북한의 베트남 무상 지원금액

다음은 ‘총리관저 문서군(Phông Phủ thủ tướng), 폴더 9235 호’의 “1955~1973년 베트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 과학 기술 관계 총관” 문서와 “1973~1979년 베트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 과학 기술 관계 총관: 보충” 보고서를 바탕

으로 작성한 <1955~1975년간 연도별 북한의 베트남 무상 지원금액> 표이다.

<표 1> 1955~1975년간 연도별 북한의 베트남 무상 지원금액

단위 : 백만 루블

연 도	금 액	연 도	금 액
1955~1964	없음	1969	4.7
1965	12	1970	1.9
1966	7	1971	2.1
1967	5.3	1972	2
1968	5.7	4년의 합계	10.7
4년의 합계	30	1973	1.1
30		1974 이후	없음
		총계	41.8

비교: 1969~1972/1965~1968 = 35%

1973/1972 = 50%

출전: 제3 베트남국립자료센터, 총리관저 문서군, 폴더 9235호, 도미엔, 「1975년 베트남전 종전과 북한정부의 대응: 베트남자료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48집, 2014, 100쪽에서 재인용⁴⁰⁾

이처럼 베트남 소재 자료를 통해 당시 북한의 북베트남 지원 변화가 베트남 전쟁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해당 표는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가 베트남 전쟁의 상황에 따라 진전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핵심적인 근거이다. 위의 표에 나타나 있듯이 북한의 지원에 가장 큰 변화가 생기는 시기는 1965년, 1969년, 1973년이였다. 해당 연도는 베트남 전쟁의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들이었는데, 1965년은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과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이 진행되던 시기였으며, 1960년대 말은 한국 전투부대 추가 파병이 중단된 시기, 또한 베트남 평화협정이 시작된 시기였다. 마지막으로, 1973년은 베트남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40) 「1975년 베트남전 종전과 북한정부의 대응: 베트남자료를 중심으로」 논문에서 인용된 표를 일부 수정하였다.

해였다. 베트남 소재 자료를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북·베 관계의 연관성은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지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자료들은 북한의 북베트남 지원에 대한 배경 및 북·베 관계의 전개와 관련된 주제들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이다.

4.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최근까지의 1차 사료의 부재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베트남 소재 남북한 관련 자료를 소개하였다. 우선, 베트남 전쟁기 남북한 관련 베트남 소재 자료들 중 제일 중요한 자료를 보관한 베트남 국립 자료 센터의 제3 센터와 제2 센터의 자료들을 그 시작점으로 삼았다. 제3 센터와 제2 센터가 소장한 베트남의 각 부서, 기관이 발행한 문서고(庫)는 북한·북베트남의 관계와 한국·남베트남의 관계에 대한 세세한 사항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구체적으로, 하노이 제3 베트남국립자료센터(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3)는 베트남민주공화국(즉, 전시 북베트남정부)의 각 기관, 부서의 활동에 대한 자료 수집, 정리, 편찬을 하는 데이터 센터로, 1950~1970년대 북베트남정부와 북한정부 간의 외교-경제-문화-과학기술 관계, 북·베 사회주의공동연대 및 북한의 베트남전 지원에 관한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들은 다음의 4가지 문서군에 약 500폴더가 포함된다. ① ‘총리관저(Phủ thủ tướng)’ 문서군, ② ‘국회(Quốc hội)’ 문서군, ③ ‘전문가 관리국(Cục Chuyên gia)’ 문서군, ④ ‘국가계획위원회(Uỷ ban kế hoạch nhà nước)’ 문서군이다. 호치민 제2 베트남국립자료센터(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는 베트남공화국(즉, 전시 남베

트남정부)의 각 기관, 부서의 활동에 대한 자료 수집, 정리, 편찬을 하는 데이터 센터로서, 1950년대 후반~1970년대 남베트남정부와 한국의 외교-경제-문화-군사 관계, 한국·남베트남의 반공주의 공동체 및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에 관한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들은 다음의 4가지 문서군에 약 300폴더가 포함된다.

① ‘베트남공화국의 총리 관저(Phủ Thủ tướng Việt Nam Cộng hoà)’ 문서군, ② ‘제1 베트남공화국의 대통령 관저(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ất Việt Nam Cộng hoà)’ 문서군, ③ ‘국가지도위원회(Uỷ ban lãnh đạo Quốc gia)’ 문서군, ④ ‘제2 베트남공화국의 대통령 관저(Phủ Tổng thống đệ nhị Việt Nam Cộng hoà)’ 문서군이다.

그 외에, 베트남 전쟁 시기 남북 베트남정부가 발행한 신문 자료, 회고록, 저서 등에 한반도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는 자료들을 찾아 소개하였다. 우선, 베트남전쟁기 북베트남에서 발행한 대표적인 신문들은 『인민신문(Báo nhân dân)』과 『인민군대신문(Báo Quân đội nhân dân)』이 있었으며 남베트남이 발행한 대표적인 신문들은 『두억 나 남(Đuốc nhà nam)』, 『띤 상(Tin sáng)』, 『띤 히에 우(Tìm hiểu)』, 경제신문인 『쩐 흥 긴 떼 (Chấn hưng kinh tế)』 이었다. 위 신문들은은 당시 한반도의 분단상황, 남북한의 경제-사회, 남북한·남북베트남의 관계, 또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한국군의 북한 이양 사실까지 다뤘다.

한편, 베트남 전쟁기 북베트남이 발행한 남북한 관련 자료는 상당한 저서 및 회고록들을 포함하며, 이는 주로 북베트남과 북한의 공동연대, 한국전쟁, 북한의 정치, 교육, 문학, 예술, 경제 등을 다뤘다. 베트남 전쟁기에 남베트남에서는 남북한 관련 회고록이나 저서가 거의 집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자료들의 비중은 비교적 적다.

북한 관련 내용을 다룬 회고록 및 저서들은 북베트남에서 활발히 출판되었으나, 한반도 관련 북베트남에서 발행된 연구논문은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로는 없다. 그러나 남베트남이 발행한 남북한 관련 연구성과는 현재까지 파악하기로 1970년대에 나온 학사학위논문 2편이 있다. 이와 같이 편중된 자료상황은 ① 당시 북베트남에서의 전쟁이 치열해 연구가 활발할 수 없었던 환경 ② 북한과 북베트남의 교류가 당시 사회주의공동체의 보편적 특징을 반영하여 단체와 조직중심의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에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과 관련하여 현재 베트남의 연구성과는 주로 한국·남베트남의 관계,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 북한의 북베트남 지원, 남북한관계에 대한 석·박사 학위논문 및 연구 저서들이며, 이러한 2차 자료 발굴 과정에서는 베트남학계의 연구성과에 나타난 베트남전쟁의 특성과 남북한 문제에 관한 베트남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전쟁은 베트남역사에서 1954년부터 1975년 4월 30일까지로 정의하고 있는, 30년의 긴 역사였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베트남은 긴 나라였으며 분단, 전쟁, 통일을 모두 경험한 나라이다. 때문에 베트남전쟁기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 소재 자료를 검토 및 소개한 과정은 30년의 역사에 대한 사료들을 발굴 및 수집한 것이며, 북베트남(사회주의체제)과 남베트남(자본주의체제), 그리고 현재 통일된 베트남에서 발행한 자료를 모두 조사해 소개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상당한 범위를 포괄한 연구이기 때문에, 본 논문이 향후 학계 내에서 베트남전쟁과 한반도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되었으면 한다.

부록

하노이

월남 민주 공화국 인민회의 상무 위원회

위 원 장 장 정 등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제 2 기 제 11 차 회의 (1962년 6월 20~21일)는 남조선에서 미국 군대를 철거시키기 위한 전 민족적 투쟁을 전개할 때 대한 문제를 심의하였습니다.

나는 동 회의에서 심의하고 만장 일치로 채택된 세계 각국 국회들에 보내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서한을 등지와 등지를 통하여 귀 인민회의 상무 위원회에 전달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에 동 회의에서 제출된 보고문과 대한 민족 국가 재건 최고 회의 및 남조선 사회 정치 활동가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서한을 등봉합니다.

나는 등지와 귀 인민회의 상무 위원회가 장기 문제에 대하여 응당한 관심을 돌리 주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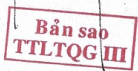
경의를 표하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의 장 최 원 택 *최원택*

1962년 6월 22일

평 양



<그림 3> 1962년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북베트남 국회에 발송 문서
출전: 제3 베트남국립자료센터, 국회 문서군, 폴더 999호.

한국 국민에게 보내는

"티우" 대통령의 메시지—

대한민국과 월남공화국은 다같이 공산침략에 직면하고 있는 자유 아시아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나라는 공동된 문제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념으로 뭉친 가장 긴밀한 우방입니다.

어떤나라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의 위협이란, 단지 이론적인 것에 지나지 않거나 매우 먼 곳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위협은 바로 우리의 문턱에 있으며, 그들은 우리의 국경을 넘겨다 보고 우리의 방어력과 경계태세의 허집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월 양국민들에게는 공산주의자들의 파괴와 침략행위는 직접적인 생존에 관계된 문제로서 끊임없는 위협이기도 합니다.

긴 안목으로 볼때 공산주의는 우리자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전 자유 세계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침략에 대처하는 공동투쟁이 있어서 우리와 어깨를 같이 하여 싸우고 있는 자유우방군 중에서 대한민국이 자신의 상처가 거의 아물기도 전에 월남에 들쭉로 큰 군대를 과감히 파견하였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증명함을 여실히 입증한 것이며 또한 자유수호를 위한 한국 국민의 헌신적 노력의 산 증거이기도 합니다.

본인은 우리 두나라 국민간의 긴밀한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국 국민에 대한 월남국민의 깊은 감사와 형제적 우의의 정을 전하기 위해 이번 한국방문을 오래전 부터 고려했고 있습니다.

〈그림 4〉 1969년 남베트남 응우옌 반 티에우(Nguyễn Văn Thiệu) 대통령의 한국 방문 당시 한국 국민에게 보낸 메시지

출전: 제2 베트남국립자료센터, 제2 베트남공화국 문서군, 폴더 1638호.

Bản sao
TTLTQG

Madame Thieu and I have long looked forward with keen anticipation to this visit to strengthen even more the close bonds which unite our two countries and peoples, and to convey to the Korean people the deep appreciation and the brotherly attachment of the Vietnamese nation.

We firmly believe that freedom in Asia, and indeed anywhere on this Earth, can and must be safeguarded, to allow every nation to choose its own form of government, to shape its destiny in conformity with its traditions, aspirations and way of life, free from external interference and aggression.

We know that united, the free nations of Asia will be able to preserve freedom and build a durable Peace, toward greater prosperity and happiness for all our peoples.

In the pursuit of these common goals, let us increase and strengthen the cooperation between our countries in every field.

Toward a better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our nations, Madame Thieu and I hope in the course of our visit to bring Viet-Nam a little closer to you.

To all of you in the Republic of Korea, we convey the warmest greetings from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Viet-Nam.



박정희 대통령 (좌로부터 세번째) 이 1966년 10월 21일 월남을 방문하였을 당시의 국가지도위원 회 "우언 반 티우" 의장 (박대통령의 우측) 과 다낭에서 회의를 갖었다.

President Park Chung Hee visited Viet Nam on October 21, 1966.

〈그림 5〉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의 남베트남 방문

출전: 제2 베트남국립자료센터, 제2 베트남공화국 문서군, 폴더 1638호.

[원고투고일: 2015.7.8, 심사수정일: 2015.8.21, 게재확정일: 2015.8.25.]

주제어 :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 북한의 베트남전 지원, 한국·남베트남 관계,
북한·북베트남 관계, 베트남전쟁, 베트남 자료, 북·베 반미 공동연대의식,
북·베 사회주의 공동의식

<ABSTRACT>

The Vietnamese Sources of Materials Related to North and South Korea, focusing on the Vietnam War period(1954~1975)

Do Thanh-Thao-Mien

This paper introduces the research materials related to North and South Korea during the Vietnam War period from the side of Vietnam, in order to tackle the limitations resulted from the current shortage of primary sources. In the other words, it investigates and introduces the sources of materials that exist in Vietnam on the issues of 1)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South Vietnam and the participation of South Korea in the Vietnam War; and 2)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North Vietnam and North Korean assistance for the Vietnam War.

The Vietnam War in the history of Vietnam was defined as a history that lasted for 30 years from 1954 to the 30 of April of 1975. Geographically speaking, Vietnam has a long territory which experienced division, war and reunion. Thus,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and introducing the sources of materials from within Vietnam, with the focus on the Vietnam War period, was synonymous with digging and collecting the materials of a long historical period of 30 years. It is also about investigating and introducing the material sources that North Vietnam (a socialist regime) and South Vietnam (a capitalist state) as well as the current united Vietnam have published.

The paper starts from the most important materials of Vietnam during the Vietnam War related to North and South Korea which are archived at the National Archive II and III. National Archive II and III reserve materials published by Vietnamese governmental offices and ministries. These precious materials show the very detail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North Korea and North Vietnam, South Korea and South Vietnam during the Vietnam War, as well as the participation of South Korean troops in the war and North Korean assistance for North Vietnam. Interestingly, among official correspondences, exchanged letters between the governments, there even exist documents that were written in Korean language. These documents, as a result, are of great value for the Korean academia and research community.

The paper continues by investigating and introducing a various types of materials such as newspapers, memoirs, books, etc, published by the Governments of North and South Vietnam during the Vietnam War. On the side of North Vietnam, the most popular newspapers published were *Nhan dan*, *Quan Doi Nhan dan*. Newspapers published by South Vietnam includes *Duoc nha Nam*, *Tin sang*, *Tim hieu*, *Chan hung Kinh te*. These newspapers had mentioned issues such as the division of Korean Peninsula; socio-economic situation of both North and South Korea; the relationships between North Korea and North Vietnam, South Korea and South Vietnam; the participation of South Korean troops in Vietnam and the fact that these South Korean troops were transferred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part from newspapers, materials related to North and South Korea published by North Vietnam during the Vietnam War include a large number of books and memoirs. These materials mentioned issues such as the “solidarity community spirit” between North Korea and North Vietnam, the Korean War, the politics, education, culture, art and economy of North Korea. Nevertheless, memoirs or books related to North and South Korea in Southern Vietnam during the Vietnam War period were barely found. As a result, the proportion of these materials is relatively small.

Although books and memoirs which had contents related to North Korea were published widely in North Vietnam, academic research or dissertation related to Korean peninsula in North Vietnam is not found even until lately. Meanwhile, according to this research results,

research achievements related to North and South Korea published by South Vietnam includes two undergraduate dissertations, which were written in the 1970s.

Last but not least, research achievements related to North and South Korea by Vietnam in the current period are mainly Master's and Ph.D. dissertations and books which c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South Vietnam, the participation of South Korean troops, the assistance of North Korea to North Vietnam and the North-South Korean relations.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these secondary sourc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etnam War presented through researches among Vietnamese academia are clearly shown. Equally perceived is the standpoint of Vietnamese government regarding issues related to North and South Korea.

Key Words : South Korean participation in Vietnam war, North Korean assistance for North Vietnam, South Korea -South Vietnam relations, North Korea - North Vietnam relations, Vietnam War, Vietnam's research materials, North Korea - North Vietnam Anti-American solidarity community spirit, North Korea - North Vietnam Socialist solidarity community spirit.